

옛모습 간직한 절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

포장(1) 좋은 사례

포장은 통행을 편하게 하고 우수로 인해 땅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땅 표면을 단단히 만들거나, 장식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덮어 다지고 꾸미는 것을 말한다. 전통공간을 보면 대개는 땅을 그냥 두고 배수처리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궁궐이나 사찰, 서원과 같은 곳에는 포장을 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특히 궁궐의 경우에는 정전마당에 박석을 깔아 격조 높은 경관성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전통공간과는 차별화된다. 사찰의 경우에도 일주문으로부터 연결되는 길이나 주불전 마당의 중심축선을 따라가며 돌을 깔아 비온 뒤에 땅이 질척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향성이나 장식성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절에 가는 길의 포장

십 수년 전만 해도 절에 가는 길은 극히 자연스러운 흙길이었다. 길 폭도 사람이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고 바닥은 그저 땅을 다져놓았을 뿐 특별한 처리는 하지 않았다. 주변에는 개울이 있어 물이 흐르고 물길을 따라 지형이 생긴 그대로

산길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차량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절에 가는 길은 자동차가 주인이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절에 가는 길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게 됐고 길 폭도 넓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비인간적인 길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전통사찰 여러 곳이 고집스럽게 흙길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예전 절에 가던 길의 정취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요즘 들어 길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는 다르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자락길 등이 길에 대한 관심을 타고 유명해진 경우다. 이 길들은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인공적인 재료가 아닌 흙길을 그대로

흙길을 절에 가던 옛 정취를 살려줘

월정사는 포장 뜯고 전나무길 복원

절 마당은 대중이 가장 많이 모여

특별한 포장보다는 자연성 살려야

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길들이 특별해진 이유가 된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절에 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이들 절에 가는 길을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건강한 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절에 가는 길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월정사 내소사 고운사 불영사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월정사는 2005년 5월 7일 전나무 숲길의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벌여 월정사 가는 길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자연친화적 숲길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절 안 길의 포장

한국사찰은 삼문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문형식이란 일주문으로부터 금강문 천왕문 해탈문 불이문과 같은 3개의 문을 거쳐 누각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말하는데, 주불전으로 연결되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절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절 안에 만든 절길은 돌을 생길 그대로 깔거나 다듬어 깔기도 하고 흙길을 그대로 두어 자연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 절마다 독특한 재료와 공법을 통해 포장을 했다. 그런데 어떠한 포장이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잘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포장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포장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전체 사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사찰 경내에 만든 길의 포장은 돌을 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돌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비온 뒤에 길이 질척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길이 파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성을 얻기 위함이며, 방향성을 부여하여 사부대중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장식성을 부여해 이전까지 걸어온 속세의 길과는 다른 분위기를 주기 위한 상징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우리 전통사찰 안에 만들어진 길의 포장 가운데에는 특별한 경관성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통도사 절길은 자연석을 모자이크 타일처럼 깔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청평사 절길은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을 놓고 그 안에 돌을 박석처럼 다듬어 깔았는데 왕궁의 어도와 같은 분위기가 난다. 청평사가 고려시대에 왕찰로서의 사격을 지니고 있었으니 포장에서도 그러한 상징성이 드



내소사로 가는 길,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를 거닐다 보면 세상 근심을 모두 잊는다.



실상사 보광전 마당 모습. 흙마당이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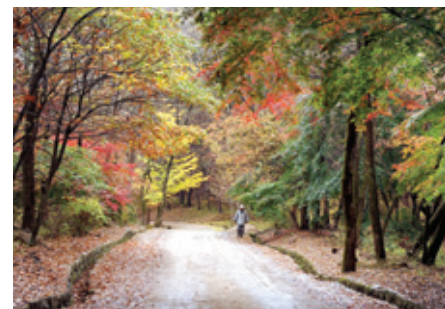
잘 정돈된 화암사 마당



고려시대 왕찰이던 청평사 대웅전 마당



양산 통도사의 잘 정비된 돌길



불영사 가는 길



월정사의 전나무 길은 도로 포장을 걷고 옛길로 복원됐다.

러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석사 경내의 길과 같이 흙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절 마당의 포장

절 마당은 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절 마당은 쾌적한 환경성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 마당의 포장은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사찰은 마당을 비워두는 대상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포장을 하기보다는 원래의 자연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마당의 경우 배수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의 토양이 점토질이라면 그 위에 마사토를 깔아 배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전통사찰이 아름다운 것은 비어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절에 갔을 때 마당을 비워놓아 놓은 정갈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사찰을 가보면 흙마당이나 마사토가 깔린 절 마당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로는 화암사 실상사 불영사 불정사 부석사 등을 비롯해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사찰로 양주 청련사는 대웅전 마당을 마사토로 덮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하였는데, 도심에 지어지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도 마사토나 황토를 이용하여 포장을 한다면 도심 속에서 산사의 기분을 최대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을 깔아 특별한 장식성을 보이고 있는 사찰들도 있다. 예전에는 왕이나 왕족들과 같이 신분이 특별한 사람들은 맨 땅을 밟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궁궐의 정전 마당에 깔린 어도와 같이 중심축선을 따라가며 돌을 깔아 폭적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왕찰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화암사지 청평사 불국사 선암사 해인사를 들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요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	1학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전대중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02.3460.5300 신촌 성통사: 02.336.2052 불전동 명락사: 02.889.7272 구로 명화사: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02.496.3803 성남 화성사: 031.745.1482 부천 천화사: 032.671.5353	평택 법장사: 031.655.9090 수원 용광사: 031.255.4105 구리 금성사: 031.563.9364 안양 대안사: 031.459.3666 안산 월강사: 031.419.5048 인천 황룡사: 032.567.2533 오산 황덕사: 031.373.2126	· 접수: 2011년 11월 21일 ~ 2012년 2월 19일 18시까지 · 면접: 2012년 2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들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